

### ■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 토론회

# “광주에 차세대 한류문화 전략적 거점 구축”

2500억 투입... 지식산업센터 건립·인재양성 캠퍼스 등 조성

국정과제 문화중심도시 실현·수도권 집중 콘텐츠산업 분산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목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 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광주를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실감콘텐츠허브,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지역 내 기반 시설과 함께 콘텐츠 제작·실증·사업화에 이르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은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의 미래비전" 발제를 통해 "최근 AI기술이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콘텐츠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기술중심 콘텐츠 융합 실증도시'를 구축해 온 광주가 K-콘텐츠 테크타운과 함께 'AI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은규 (썬)상화 부사장은 "기술융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발제에서 자사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콘텐츠산업의 무한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재원 (썬)텍스터스튜디오 소장은 'AI시대의 콘텐츠산업과 창작환경의 변화' 주제 발표에서 "광주에는 AI콘텐츠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사업이 광주지역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

해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의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광주가 선도하며 미래형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테크타운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 서구, '건강 100세 시대' 걷기사업 성과 공유

걷기 교육-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민 주도 건강문화 조성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걷기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서구는 '건강 100세 시대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걷기 교육 확대 ▲걷기 리더 양성 ▲커뮤니티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했다.

서구는 '바르게 걷기 교육', '맨발로 청춘학교', '찾아가는 힐링스쿨'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총 45회 운영했으며 1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또한 걷기지도사·맨발걷기교육지도사 등 걷기 리더 194명을 양성해 지역 내 건강한 걷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슬로우조깅단'을 운영했다. 2개 주민팀이 80회에 걸쳐 자율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며, 심신 건강 회복과 이웃 간 교류 촉진 등 공동체 활력 증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도심맨발축제, 걷기 한마당, 슬로우

조깅 마라톤 등 커뮤니티 기반 활동과 ▲어린이 건강키움학교, 가족걷기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를 주제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발표 등을 통한 성과 공유를 비롯해 ▲우수 참여자 시상 ▲걷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걷기 리더로 성장한 주민의 참여 과정과 건강 회복 경험이 소개돼 큰 공감을 얻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올해 걷기사업은 걷기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을 나누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걷기학교와 자율 커뮤니티를 더욱 확대하고 생활권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 북구, 19일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개소... '주민 화합·소통 거점' 기대

오는 19일 오후 2시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열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마치고 오는 19일 개소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격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또한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북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작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총 1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말 시설 조성을 마쳤다.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26.61㎡ 규모의 지상 3층 필로티 구조로 건립됐으며 건물 2층에는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실, 3층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특히 커뮤니티센터 2·3층을 기존 행정복지센터 청사와 내부 동선으로 연결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개소식은 주민총회와 연계하여 19일 오후 2시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

실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는 ▲유공주민 표창 ▲경과보고 ▲기념촬영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마을의제를 논의하는 주민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광주 남구,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242개' 제공한다

공공 부문 일반·복지·특화형 유형별 일터 마련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한해 공공 부문 일자리 242개를 제공한다. 남구는 17일 "관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6년 한해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형은 구청에서 직접 장애인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복지형 및 특화형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공공 부문 사업을 위탁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는 구청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로, 전일제와 시간제로 제공한다. 분야별 일자리 수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

제 일자리 45개와 주 5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31개이다.

복지형 분야에서는 일자리 124개를 제공한다. 1주일에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을 근무하는 참여형 일자리 형태로, 주로 환경 정비를 비롯해 급식 지원,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연계형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37개이다. 특수교육 연계형은 1주일간 14시간 이내 한달간 56시간 범위에서 도서관 사서 보조와 반려동물 돌보는 활동 등을 펼치며,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주 5일 25시간씩 일을 한다.

/임채일 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충장축제 공모전' 진행

사진 및 내년도 프로그램 제안 공모, 누구나 참여 가능

제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수집하는 '제22회 충장축제 사진 공모전'이다. 응모작은 오는 12월 초 구청 로비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제22회 충장축제 기간 중 촬영한 사진으로, 1인당 3점 이내 출품이 가능하며 출품비는 무료다. 수상작에는 ▲1등(1점) 커피 쿠폰 10

만 원권 ▲2등(1점) 5만 원권 ▲3등(3점) 2만 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응모는 충장축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진과 함께 이메일(2025chungjang@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공모는 내년 축제 주제 '추억의 노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2026년 제23회 충장축제 프로그램 대국민 공모'다. 축제의 본격적인 기획에 앞서 시민 아이디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제22회 충장축제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시민 주도형 축제'로 완성됐다"며 "이번 두 가지 공모전은 올해의 감동을 기록하고, 내년 축제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의회**

**“좌석은 절반, 불편은 두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이 답이다**